증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코스피 콘도르 4·10%' ETN 발행… 18일 상장

신한금융투자는 12일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는 '신한 코스피 콘도르 4·10%' ETN을 발행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양매도 ETN을 바탕으로 외가격 옵션 매수를 더해 KOSPI200 지수 움직임에 따른 손실 범위를 제한한 상품으로 오는 18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이다.

매월 KOSPI200 지수의 ±4%에 해당하는 행사가격의 옵션을 매도하고 KOSPI200 지수의 ±10% 행사가격 옵션을 매수하는 상품이다. /김문호 기자

미래에셋대우

지문·핀·QR인증 첫 도입

미래에셋대우는 12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의 편의성 증진과 보안 강화를 위해 PC 간편인증(지문·핀(PIN), 큐알(QR)인증)서비스를 증권사 최초로 도입했다.

PC 간편인증 서비스는 지문·핀 번호 확인 또는 큐알코드 촬영을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방식이다. 이번 PC간편인증 서비스 도입으로 미래에셋대우 고객들은 3가지 로그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HTS 로그인은 물론 시세와 잔고조회, 매매, 이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ELS 6종·DLS 2종 공모

KB증권은 14일까지 3개 기초자산(Nikkei225·HSCEI·S&P500)으로 최고 연 6.5%(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660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6종과 파생결합증권(DLS) 2종 등 8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655호(3인덱스 스텝다운형)는 Nikkei225지수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5.3%(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인프라-부동산 투자 '중위험-중수익상품' 서민엔 '그림의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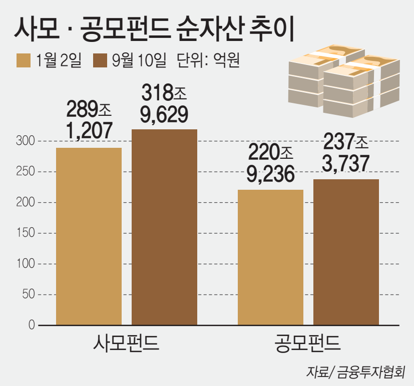
사모인데다 최소 '억대'… 그들만의 리그

증시 부침과 반대로 시장 커져가
연 5% 이상 상품 대부분 사모형
공모형 리츠 권유에도 '미적지근'

최근 증시가 부침을 겪으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각종 인프라, 부동산 등을 담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사모형으로 설정되면서 서민들에겐 '못 먹는 감'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는 특정인에게 투자기회가 갈 뿐만 아니라 '억원대'를 상회하는 투자금액 단위도 서민들에겐 부담이어서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내 설정된 공모펀드의 순자산은 237조37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220조9236억원보다 7.4%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해당기간 사모펀드는 289조1207억원에서 318조9629억원으로 27.6%나 늘었다. 사모펀드 시장은 증시 부침과 반대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추이를 비교해보면 올해 사모펀드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연초부터 9월 11일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6.41%, 3.97% 오르는 등 주식 활황기였다. 이 기간 공모펀드 순자산은 10.2% 증가했고, 사모펀드 순자산은 13.2% 증가하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사모펀드가 유독 성장하는 것은 주식 시장이 침체되고, 경기가 꺾이면서 중수익이라도 보장하는 사모펀드로 투자자금이 쏠리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최근의 변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로 다양한 운용전략을 갖춘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사모 펀드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꾸준한 임대수익과 매각시 차액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연 초 1146개에 불과했던 부동산 사모펀드가 9개월새 200가 늘었다. 해당기간 공모형은 29개에서 34개로 소폭 늘어났다. 부동산 펀드 시장에서 공모형이 차지하는 자금 규모는 3% 남짓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위험·중수익' 사모 펀드가 나오고 있다. 홈쇼핑 펀드, 양계장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홈쇼핑 펀드는 물량에 대한 판매금 90%를 판매자에게 선지급하고, 완판 시 10%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양계장 펀드 역시 한 양계농장과 계약을 맺고 대기업에 닭을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폐기물 업체를 인수하고 되팔면서 수익을 내는 폐기물 사모 펀드도 인기다.

이처럼 연 5% 이상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량 상품을 담은 펀드는 대부분 사모형으로 설정돼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만큼 꾸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공모형같이 자금이 썰물처럼 들어오고 빠지는 경우 수익률 관리가 힘들다"고 항변했다. 또 "공모는 운용에 대한 규제가 강해 시장환경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일부 우수한 투자처가 사모펀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신탁사에게 '공모형 리츠' 상품 출시를 적극 권유하는 등 회유책을 펼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그 수익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 일부 '큰 손'과 기관이 가져가면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우수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공모형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건강식품 전문 플랫폼… 56만 명 회원이 자산

IPO기자간담회

푸드나무

연평균 성장률 110% 기록

국내 최초 닭가슴살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으로 유명한 푸드나무가 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푸드나무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18, 19일 청약을 거쳐 내달 초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3년 법인으로 전환된 푸드나무는 자체 플랫폼인 랭킹닭컴을 필두로 다이어트 레시피 전문 매거진 '닭쿡', 헬스&피트니스 전문 미디어 '개근질닷컴', 바디프로필 전문 스튜디오인 '스튜디오U' 등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콘텐츠 제공 및 제품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온라인으로 음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온라인 식품회사를 영위하고 있는 푸드나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348억원, 영업이익 43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18억원이었던 매출액이 4년 새 348억원으로 커지면서 연평균 성장률(CAGR) 약 110%를 기록한 셈이다.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문 푸드나무 대표가 사업설명을 하고 있다. /푸드나무

김영문 푸드나무 대표는 "푸드나무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는 자체 플랫폼을 보유해 방대한 소비자 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사브랜드(PB)를 개발, 판매, 운영하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사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판매 대행수수료를 절감했고, 전자결제대행(PG)사와 직계약을 통해 수수료 경쟁력도 확보했다. 또 자체 보유 앱 다운로드 수 증가 등에 따라 광고 마케팅비도 절감되고 있어 고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ROE)은 13.5%에 달한다.

이러한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도 갖춘 결과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재구매율 증가 등 충성고객도 많다. 실제 푸드나무는 2018년 6월 기준 회원수 56만 명 중 2회 이상 재구매 고객이 57%에 이르는 등 충성고객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다.

향후 푸드나무는 간편건강식품의 제품 라인업 확대와 함께 헬스&다이어트 시장 전문 플랫폼을 런칭하는 등 미디어&콘텐츠 사업 또한 강화해 사업 간의 시너지는 물론 푸드테크 기반의 웰니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판매처도 다양화한다. 자사플랫폼 외에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스포츠센터 등 오프라인 판매채널도 확대하고 있으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해 사용자 접근성도 확대하고 있다.

물류혁신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6년에 착공한 파주 자동 냉동 물류센터는 올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회사는 매출비중이 높은 지역을 거점으로 물류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물류 혁신을 통한 당일배송, 새벽배송, 신선배송, 통합배송 등 콜드체인 구축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푸드나무 공모 주식수는 155만5810주로 주당 공모 희망밴드는 1만8700원~2만27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291억원~353억원으로 사이트 개발 및 운영, 제품 연구개발, 실험연구장비 구입 시설투자, 해외시장개척 등 사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삼성카드, 30일 '2018 홀가분 마켓' 개최

Advertorial Corner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서 진행

삼성카드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2018 홀가분 마켓'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5번째 열리는 홀가분 마켓은 청년사업가,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업사이클링 업체 등 약 170팀의 판매자들이 준비한 실용 장터와 함께 삼성카드 모델인 아이유와 인기가수 김태우 등의 문화 공연, 먹거리와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어우러지는 가을철 대표 축제다.

삼성카드 회원뿐 아니라 홀가분 마켓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신진 예술작가의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셜 굿즈(착한 상품)'를 선보이는 등 상생에 초점을 맞춰 한층 더 강화된 CSV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CSV(Creating Shared Value)란 기업의 단순한 이윤추구 단계를 넘어 사회현안에 대해 고객과 기업이 소통을 통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가을철 대표적인 상생과 축제의 장, 홀가분 마켓을 통해 삼성카드가 주력하고 있는 CSV 경영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한화투자증권

도심속 음악회 '스치듯 라이브'

한화투자증권은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 1층에서 도심속 음악회 '라이프플러스(Lifeplus)×스치듯 라이브(라이프플러스 스치듯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요조, 잔나비, 옥상달빛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낯선 곳에서 낯익은 음악이 스치듯 마주칠 때'라는 음악회의 컨셉에 맞춰 가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음악회는 10월 26일까지 두 달간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시 10분~50분동안 진행된다. /김문호 기자